

# 이재명 체포동의안 대치...2월 임시국회도 민생 올스톱

### “불체포특권 포기” vs “정치 탄압”

#### 27일 표결...여야 공방 가열

#### 운영위 김건희 의혹 제기 촉각

#### K-칩스법·양곡법 처리 미지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따라 막바지에 접어든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입법이나 지원책이 논의되기 보다는 여야의 정면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했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버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이자 토착-인허가 비리를 막아주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막고 홍위병이 돼야 하나"며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민주·법치 국가'인지 '뻔뻔 국가'인지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도 여당을 향해 '검사 정권의 들쭉대'라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들쭉대장을 자임했다"며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약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

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의 격돌은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정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개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운영위가 화약고다.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물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막혀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만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친권의 관저 결정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달아오르는 국힘 당권 레이스...폭로·비방전 얼룩

### 부동산 투기 의혹 놓고 치고 받기

### 당 선관위 혼탁 우려 공개 경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19일로 2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시작을 계기로 후보 간 비방전도 본격화돼 당 선관위가 공개 경고를 하는 등 혼탁 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까지 합동연설회는 4차례(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8일 대구·경북, 3월 2일 서울·인천·경기), TV토론은 3차례(20일, 22일, 3월 3일)가 남아있다.

17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까지 주자 간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에 오른 당권 주자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본선 경쟁의 막이 올랐고, 15일 첫 TV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해 제기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안 후보가 공격 소재로 삼으면서 김 후보와 안 후보 간 비방전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황 후보는 당시 수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거론하며 "용기 있게 사퇴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김 후보와의 결선 투표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 후보가 즉각 가세했다. 그는 TV토론이틀날 합동연설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선두 주자를 자처하며 다른 후보에 대한 비난을 가급적 자제하던 김 후보는 안 후보의 공격에 즉각 발끈했다.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식 DNA

, '내부 썩질'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정작 이 문제를 처음 깐집어낸 황 후보에 대해서는 강성 보수 표심을 의식한 듯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안철수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결선투표 상황까지 갈 경우 황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천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후보는 양강 구도의 김·안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한편 황 후보를 향해서도 과거 부정선거 주장을 깐집어내 경제구를 던지는 등 4자 구도에서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천 후보는 특히 첫 TV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황천길(황교안·천하람) 매치'가 될 수도 있겠다"면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 주자 간 이런 '4각 비방전'을 놓고 전대 혼탁 양상과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통령실 “장애 공무원 의무비율 초과 고용”

대통령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19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에 "중증 장애인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정원은 약 500명으

로 알려졌다. 장애인 공무원을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의무고용 비율이 3.8%(19명)로 다소 상향되더라도 추가 고용 없이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법이 요구하는 3.6%보다 높은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순위 결정”

### 당원권 강화·공천 시스템 발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19일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현역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원권

강화와 공천 시스템'을 주제로 한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고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되도록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당대회가 100% 당원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1위 다툼을 하는 김기현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당내 입지가 약한 안 후보의 '책임당원 구애'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우선 '책임당원 선거인단제'와 '책임

당원 배심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비례대표 후보군의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책임당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책임당원 재적수의 0.5%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의 경우 당 지도부가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는 '당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원소환제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소환기준도 현재 책임당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